“애순·금명이 손 글씨, 전부 제 손에서 나왔죠”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손글씨 대역 김윤주 원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극 중 애순이가 원고지에 시를 쓰는 장면. 김윤주 원장이 대역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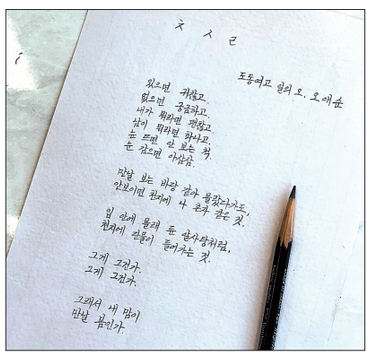
‘폭싹 속았수다’ 감독팀 글씨 모체로 애순이 글씨체 완성해

“옛날 펜글씨 교본 섭렵했죠”

최연소 조계종 여성불자회원

불교 · 서예, 어머니 영향 받아

“손글씨 관심, 서예 이어지길”



애순이가 쓴 시 ‘ᄎᆞᆺᄅ(첫사랑)’, 김윤주 원장이 직접 썼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애순 · 금명의 손 글씨 대역을 맡은 김윤주 감성꼴 서예원장. 최연소 조계종 여성불자회원이기도 하다.

“은사님이 송민 이주형 선생님인데, 사극 자문위원을 많이 하셨어요. 은사님 소개로 처음 참여한 작품이 JTBC 사극 〈인수대비〉(2011)였습니다. 여기서는 배우 채시라 씨의 손 글씨 대역을 맡았죠. 이후 영화 〈강릉〉 타이틀 글씨나 〈기방도령〉의 소품 제작에도 참여했죠.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손 글씨 대역도 이런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윤주 원장이 〈폭싹 속았수다〉 손 글씨 대역으로 참여한 것도 은사의 소개였다. 드라마 제작팀에서 애순과 금명의 손 글씨 대역 섭외를 은사에게 문의했고, 이에 은사는 김윤주 원장을 연결시켜줬다.

“감독·작가님이 가진 레퍼런스(창작물 제작 시 참조자료)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를 글씨를 써서 보냈어요. 이를 보고 감독·작가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레퍼런스의 내용이 궁금해 묻자, 김윤주 원장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독님의 어머니 글씨였다”고 말했다.

“드라마 첫 시작의 배경이 1950~1960년대 제주도이니, 애순의 글씨체도 이를 반영해야 했어요. 그래서 애순의 글씨는 한글의 궁서 정자체로 세로획이 꺾이는 느낌을 넣었습니다. 애순의 글씨체를 완성하기 위해 옛날 펜글씨 교본들도 많이 참조했어요. 극 후반부, 애순이가 시집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글씨를 옛날 궁서체보다 조금 더 유려한 느낌으로 썼어요. 삶이 완숙해진 느낌을 주려고 했죠. 금명의 글씨도 달라요. 현대 학생의 느낌이죠. 손 글씨의 매력을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이 알았으면 해요. 이 관심이 서예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광례-애순-금명으로 이어지는 유전(遺傳)이 극의 한 축이듯 김윤주 원장이 서예를 업으로 삼고, 불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김윤주 원장은 외할아버지가 서예가셨고 어머니도 서예에 일가견이 있었다.

“어머니와 오빠는 서예를 하는데 저는 어리다고 안 시켜줬어요. 어린 마음에 서예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서예를 가르쳐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후로는 계속 서예를 해왔습니다.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보냈는데 그때마다 저를 잡아준 것도 서예였습니다. 화선지, 붓, 먹과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불교 역시 불심이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이어졌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불국사, 석굴암 등을 다니며 신심을 키웠다. 같은 서예학도로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은 남편은 이근혁 조계종 중앙신도회 팀장이다. 남양주에 사는 부부는 주말에는 아이들과 봉선사를 찾는 것이 일상이다. 서예작가가 본업인 만큼 신행도 ‘사경’이다.

“저는 작품에서 〈반야심경〉을 다양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도 많이 시청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전통을 공부해 새로운 제 것을 찾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종로에서 한문 고전을 배우고 있다.

“오리지널을 만들려면 전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5~10년을 진득하게 공부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만의 서예를 하고 싶다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괘불탱 조사 10년 결실 10번째 조사보고서 발간

국가유산청 · 성보문화유산硏

무량사 괘불탱 등 5건 조사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야외에서 봉행되는 대규모 불교의식을 위해 제작된 대형불화, 괘불탱에 대한 10번째 정밀조사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사)성보문화유산연구원(원장 송천 스님)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4년 성과를 담은 열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불교회화(불화)는 재료적 취약성과 각종 재해로 인한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불화는 그 무게나 크기로 인해 출납과 이동이 어려워 다른 회화 문화유산에 비해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형불화의 원형자료(채색정보 등)와 보존현황에 대한 조사를 지난 2015년부터 성보문화유산연구원과 10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조사한 괘불도는 ‘청량산 괘불탱’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 ‘하동 쌍계사 괘불도’ ‘남해 용문사 괘불탱’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탱’ 총 5건의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적 조사를 함께 실시했으며, 삽화로 제작한 도면 등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청량산 괘불탱’과 ‘하동 쌍계사 괘불도’의 테두리에 기록된 범자(梵字)를 확인·판독해 도판과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으며, ‘남해 용문사 괘불탱’의 경우 석가모니불과 보살의 옷 문양과 보살의 장신구에 고분(高粉) 기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은 미륵불을 본존으로 그린 괘불도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1627년)의 작품으로, 현재 국보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밀조사 보고서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10년간의 괘불도 조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불화 보존관리 지침서〉도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와 함께 괘불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괘불도 보존·관리에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10년간의 조사사업을 통해 총 9건의 괘불도가 보물로 지정되는 등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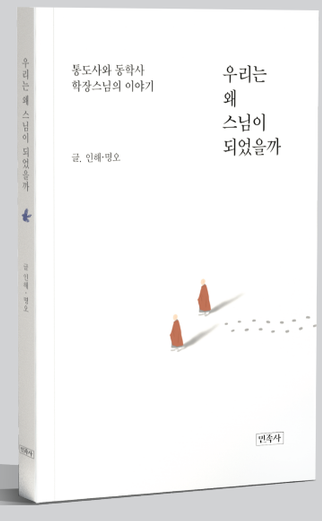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는 대형불화의 다른 종류인 후불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불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불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24년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